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 ~ 4학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troducti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According to
2007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1st to 4th Grader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최지영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 ~ 4학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troducti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According to
2007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1st to 4th Grader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최지영

2011년 2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 ~ 4학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troducti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According to
2007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1st to 4th Graders'-

지도교수 이 주 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최 지 영

2010년 11월

최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12월

목 차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4
II.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의 특성	5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5
2. 2007 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6
3.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원리	9
III.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	11
1. 도입 학습의 의의	11
2. 도입 학습의 특징	13
3. 학습 동기 이론	15
IV.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별 분석	18
1. 분석 대상과 방법	18
2. 삽화와 발문부분 분석	19
3. 단원의 길라잡이부분 분석	37
4.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안	60
V.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8

표 목 차

<표 II-1> 3학년 쓰기 지도 내용	8
<표 II-2> 1학년 1,2학기 교과서의 단원 편성	9
<표 III-1>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	23
<표 IV-1>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요소	40
<표 IV-2> 1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41
<표 IV-3> 1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43
<표 IV-4> 1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44
<표 IV-5> 2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45
<표 IV-6> 2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47
<표 IV-7> 2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48
<표 IV-8> 3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50
<표 IV-9> 3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52
<표 IV-10> 3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53
<표 IV-11> 4학년 『듣·말·쓰』 단원의 길라잡이	55
<표 IV-12> 4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56

그림 목 차

[그림 II-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7
[그림 III-2] 교과서 도입 학습의 예	12
[그림 III-2]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	13
[그림 IV-1] 도입학습의 삽화와 발문 및 단원의 길라잡이	19
[그림 IV-2] 동기유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삽화와 발문	21
[그림 IV-3] 호기심 유발 삽화와 발문	24
[그림 IV-4] 학습자 흥미 유발 삽화와 발문	25
[그림 IV-5] 친밀감 형성 삽화와 발문	26
[그림 IV-6] 필요성 및 목적의식 형성 삽화와 발문	27
[그림 IV-7] 자신감 및 도전감 유발 삽화와 발문	28
[그림 IV-8] 문장 구별 삽화와 발문	39
[그림 IV-9] 문법 요소 확인 삽화와 발문	30
[그림 IV-10] 시에 관한 삽화와 발문	31
[그림 IV-11] 경험 회상 삽화와 발문	33
[그림 IV-12] 기존 지식 발표 삽화와 발문	34
[그림 IV-13] 학습 내용과 관련한 생각 발표 삽화와 발문	34
[그림 IV-14] 1,2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프	35
[그림 IV-15] 3,4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프	36
[그림 IV-16] 필요성 + 학습 내용 형태	38
[그림 IV-17] 뒷받침 + 방법 + 학습 내용 형태	39
[그림 IV-15] 학습 내용 형태	39

국문 초록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

최 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본 연구는, 1~4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입 학습의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 국어과 교과서 도입학습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진행하였다.

교실 현장에서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수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있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이를 현장 교사와 함께 공유하여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수업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단원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학습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학습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꼼꼼히 검토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II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분석을 위한 교과서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 1절에서는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을 알아보았고, 3절에서는 개정 교과서의 단원 구성 원리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대한 고찰로 1절과 2절에서는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3절에서는 삽화와 유형 분석 시 필요한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eller

의 학습 동기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듣·말·쓰』의 단원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1~4학년 교과서 총20권 159개의 도입 학습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절에서는 삽화와 발문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3절에서는 단원의 길라잡이부분을 분석하였는데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1학년의 경우에 동기유발 유형이 월등히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학습목표주지 유형은 모든 학년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 1~4학년 수준에서는 도입학습 전개 시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학습목표를 해결하는 조급은 딱딱한 전개의 학습활동에 대한 안내보다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삽화와 발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는 대부분 각 학년 수준에 맞게 적절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교과서 간에 일관성과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 4절에서는 2,3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입학습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국어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시사점과 더 좋은 도입 학습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상에 ‘도입 학습’이라는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 셋째, ‘단원의 길라잡이’라는 용어의 도입과 여기에 제공될 내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넷째, 단원의 길라잡이의 학년 간, 교과서 간에 일관성과 연계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단원 학습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 학습에 대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도입 학습이 학습자와 교사에게 단원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배경지식활성화, 학습목표 인식과 더불어 학습의 방향과 성격 등 단원의 ‘시작’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과서 도입 학습에 대한 질적 개선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도입 학습,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9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현재 3, 4학년까지 개정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가르칠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의 방향과 세세한 학습 활동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의도나 목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한다. 추상적인 언어로 풀어놓은 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열린 교과서관이 확대 되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화 되면서 근래에 와서는 교과서를 수업을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과서는 학교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학습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이런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연구 결과가 교실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수업 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단원 학습의 시작이 되는 단원의 도입은 그 단원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성취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인식시키며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는 이를 구축하고 학습 문제와 연결지어야 한다. 교과서가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이 되는 자료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교과서의 도입 단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과서 단원 구성 전체 체제를 다루다 보니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과 같은 교과서의 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 초등학교 교과서 ‘읽터’에 관한 연구와, 중학교 ‘준비 학습’ 과 ‘읽기 전’ 에 대한 연구, ‘학습 활

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정도이다.

교과서는 앞서 밝혔듯이 교수·학습의 안내서로써 교사와 학생이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지시해 주어야 한다.

교실 현장에 개정 교과서가 도입되고 교수·학습의 핵심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새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현장에 투입하는 교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새 교과서를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투입하고 있는 면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이를 현장 교사와 함께 공유하여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수업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중 단원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 학습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 학습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를 꼼꼼히 검토해 보는 연구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입 학습의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도입 학습의 중앙에 위치한 삽화와 질문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 분류 결과를 토대로 도입 학습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두 번째는 도입 학습의 하단에 위치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탐색해보고 더 나은 도입 학습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분석하여 교과서 개선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 1절에서는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금 검토하고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2절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3절에서는 교과서 단원의 구성 원리와 체제, 구성 요소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도입 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고 2절에서는 도입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시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 동기 이론을 검토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1), 『읽기』, 『쓰기』의 단원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 별로 분석한다. 1절에서는 교과서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2절에서는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부분을 3절에서는 단원의 길라잡이부분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2,3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 학습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국어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교육적 시사점과 더 좋은 도입 학습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도입 학습

이 연구에서 도입 학습은 교과서의 단위 차시 학습의 부분²⁾이 아닌 단원 시작의 첫 페이지에 있는 단원 도입 부분의 학습을 말한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단원 도입 부분의 학습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지 않았다. 교과서 앞표지의 뒤쪽 부분 ‘이렇게 활용해보세요!’에서는 도입 부분을 ‘단원을 시작하며’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도입’으로, ‘단원 구성의 요소’진술 부분에서는 ‘도입 부분’³⁾이라고 하였다. 1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은 아니지만 엄연히 교과서 지면에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교실 현장에서도 학습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단원의 도입 부분에 대한 학습을 ‘도입 학습’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이하 『듣기·말하기』는 듣·말로 줄여서 지칭한다.

2) 한 차시 수업의 구성에서 말하는 도입-전개-정리의 ‘도입’의 의미가 아님을 말한다.

3) 그에 비해 다른 학습은 ‘이해학습’, ‘적용학습’, ‘단원정리학습’이라고 명확히 지칭하고 있다. 특히 단원정리학습의 경우에는 도입 학습과 같이 1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단원의 길라잡이

이 연구에서 단원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글상자를 ‘단원의 길라잡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풀어서 안내해 주는 역할’ 이라고만 설명하였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요소에 있는 단원의 길잡이는 학습 목표와 캐릭터가 제시되어 있다. 이 단원의 길잡이는 말 그대로 단원 학습의 길잡이 성격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 하단에 있는 글상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길라잡이’의 사전적 의미는 ‘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지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고, 같은 말로 ‘길잡이’라고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글상자를 단원의 길라잡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도입 학습의 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 기준에 의해 해석하였으므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 기준이 바뀔 경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단원의 도입 학습 부분만 분석 하였으므로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 정리 학습 부분과의 일관성 측면은 연구하지 못했다.

II.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의 특성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각 교과 수업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교재로, 교과서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영(1995)은 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재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적·표상적 실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표상적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며, 물리적이라 함은 교사와 학습자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재 중 하나인 교과서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으므로 일정한 내용으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현재까지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실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한 학습 자료이다.(김경옥, 2004, p.10에서 재인용)
- 교과서는 교육 공동체의 합의 아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교재이다(노명완, 2002, p. 120).
-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이라는 제도의 외연을 보여주는 명료하고 고정된 실체라 할 수 있다(김창원, 2003, p. 45).
- 교과서는 추상적인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이다(정혜승, 2004.p.1)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가르칠 내용과, 학습자에게는 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실 상황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의해 달라지게 되고 교육과정, 교육 공동체, 교수학습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과서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 노명완(2004)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교과서는 사회와 관련하여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윤리적인 계도를 하며, 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 둘째,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철학과 내용을 재해석하고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 셋째, 교과서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 넷째, 교사와 관련하여 교과서는, 교수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를 안내하며, 언어 사용의 모델을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 한다. ... 다섯째, 교과서는 학생에게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 기능을 정착시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16-18)

교과서는 교과서가 개발된 사회의 특정 상황과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발된 교과서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해 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를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 내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생, 교사,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해당 학습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제공하며,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2007 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국어 교과서의 근본이 되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에 대해 살펴보며 교과서 분석 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중심의 ‘실제’ 지향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중 첫 번째는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실제’를 지향하는 국어 교육을 표방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실제적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실제(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를 상위 범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지식과 기능, 맥락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주제인 도입 학습의 단원의 길라잡이에도 담화와 글의 종류에 대한 ‘실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본질	원리	태도	실제	
			지식	기능
실제			맥락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그림 II-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달성을 지향하는 국어 교육

두 번째는 성취기준 달성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국어 학습의 내용이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의 학습 목표 진술 성격에서 벗어나 직접 학습자가 학습한 결과를 표출하기 위해 “~안다. 이해한다.”의 진술로 바뀌었다. 즉 성취기준은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목표 나 학습 과제의 성격을 갖고 평가 상황에서는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된다. 성취기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은 되도록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신헌재 등,2009, p18)

읽기 영역의 3학년 성취 기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와 듣기 영역의 5학년 성취기준 “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를 살펴보면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학습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학교 수준에서의 탄력적인 수준별 수업 강화

세 번째는 학교 수준에서의 탄력적인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에서 기본, 심화 활동의 수준별 학습 활동을 삭제하고 단위 학교, 즉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탄력적인 수준별 수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사항을 ‘4.교수·학습 방법’항의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신헌재 등,2009, p20)

3학년 쓰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글의 수준과 범위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표 II-1> 3학년 쓰기 지도 내용

<글의 수준과 범위>

-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
-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
-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
-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감상문

제시된 담화와 글의 내용은 학습자의 학년 특성, 언어 사용 상황,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하나의 예시로써 수업 상황에서 다른 자료로 교체하여 지도할 수 있다.

3.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원리

가. 단원 구성 원리와 체제

7차 교과서에 이어 새 교과서에도 국어 사용 실제(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를 중심으로 단원을 편성하였다. 1학년 1학기 및 2학기 교과서의 단원 편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1학년 1,2학기 교과서의 단원 편성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단원	2	3	4	5	6	1	2	3	4	5	6	7
정보	설득	상호	정서	설득	정서	정서	정보	상호	사회	정보	상호	정서

위에 제시한 단원 편성표를 보면 각 국어 사용 실제(텍스트)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개정 국어 교과서의 단원은 ‘도입→전개(이해와 적용)→정리’학습과 ‘놀이터’로 구성된다. 도입 학습은 단원명과 국어 상황 및 목적으로 구성되고, 이해학습은 차시 학습 목표 관련 지식과 기능 및 맥락 요소를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며, 적용 학습은 이해학습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능 및 맥락 요소를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정리학습은 단원 학습 내용 성취도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한편, ‘놀이터’는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신헌재 등, 2009. p.34)

새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오른쪽 페이지에서 시작하고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장부터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이 시작되는데 『듣·말』과 『쓰기』의 경우에는 앞 부분 도입 학습과 뒷 부분 정리학습을 포함하여 4차시로

구성되고, 『읽기』는 6차시로 구성된다. 놀이터는 정리학습 다음 페이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단원의 학습 내용이 아닌 학습자들에게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있다.

나. 단원 구성 요소

단원은 도입 학습과 이해, 적용 학습, 정리 학습, 놀이터로 구성되는데 먼저 도입 학습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자.

도입면에서는 단원명을 확인하고, 단원 학습에 필요한 상황(목적, 필요성, 동기 등)을 인식하면서 단원 학습 목표와 해당 단원의 주요 학습 활동을 파악한다. 도입면은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단원명을 상단에 제시하며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삽화나 사진 등을 국어 사용 목적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하단에 발문을 넣는다. 삽화 하단에는 단원 목표를 상세화하는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학습 목표 관련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을 설명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성취 기준(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 정보를 제공한다. (신헌재 등, 2009, p.36)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학습 동기나 문제 의식 고찰을 위해 제공된 자료(삽화, 질문)를 통해 학습자의 본시 학습에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유발한다. 본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발된 동기를 지속시키며 학습에의 목적 의식과 성취 의욕을 높이는 것은 본시 학습 활동에의 성공적인 해결과 더불어 그에 따른 학습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해학습에서는 단원 목표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 맥락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하며 적용학습에서는 이해학습에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한다. 이해학습이 해당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적용학습은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리학습은 해당 단원에서 학습했던 지식, 기능, 맥락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놀이터는 앞에서 밝혔듯이 창의적 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말놀이나 글놀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Ⅲ.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

1. 도입 학습의 의의

도입 학습은 학습자가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미리 인식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흥미를 유발시키며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입 학습의 첫 번째 의의는 학습자의 학습에의 성취의욕과 동기유발이다. 앞서 밝혔듯이 학습 동기나 문제 의식 고찰을 위해 제공된 자료(삽화, 질문)를 통해 학습자의 본시 학습에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유발한다. 차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단원 학습 내용에 관해 동기를 유발하고, 유발된 동기를 학습하는 동안 지속시키며 학습에의 목적 의식과 성취 의욕을 높이는 것은 본시 학습 활동에의 성공적인 해결과 더불어 그에 따른 학습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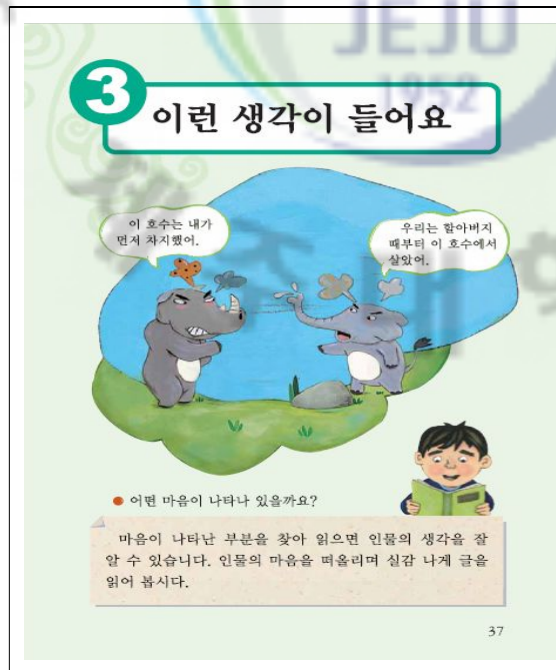
두 번째 도입 학습의 의의는 학습 내용과 관련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새로운 학습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거나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시 학습에 들어가기 전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경험을 회상하며 학습 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도입 학습의 또 다른 핵심적인 의의는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 학습자가 본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내용에 대해 삽화와 발문을 통해 미리 간단히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에 대한 배경지식을 점검해 보는 활동과는 다른 마치 수학 교과서의 ‘문제 푸는 방법 찾기’의 하나인 ‘단순화하기 방법으로 해결하기’의 의미와 비슷하다. 교사는 학습 내용이 교과서의 도입 학습에 제시되었을 때, 학습자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내용을 제시하기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

시되지 않는다면, 학습 내용에 대한 진술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에 추상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성격이나, 학습 방향, 학습에의 필요성, 언어 사용 상황 등 학습자가 본시 학습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입 학습의 주요 내용은 단원의 학습 목표와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구성요소로는 단원명, 단원의 학습목표,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 사전 지식 활성화, 학습 내용의 개요⁴⁾, 학습의 방향·방법 제시⁵⁾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교과서의 도입 학습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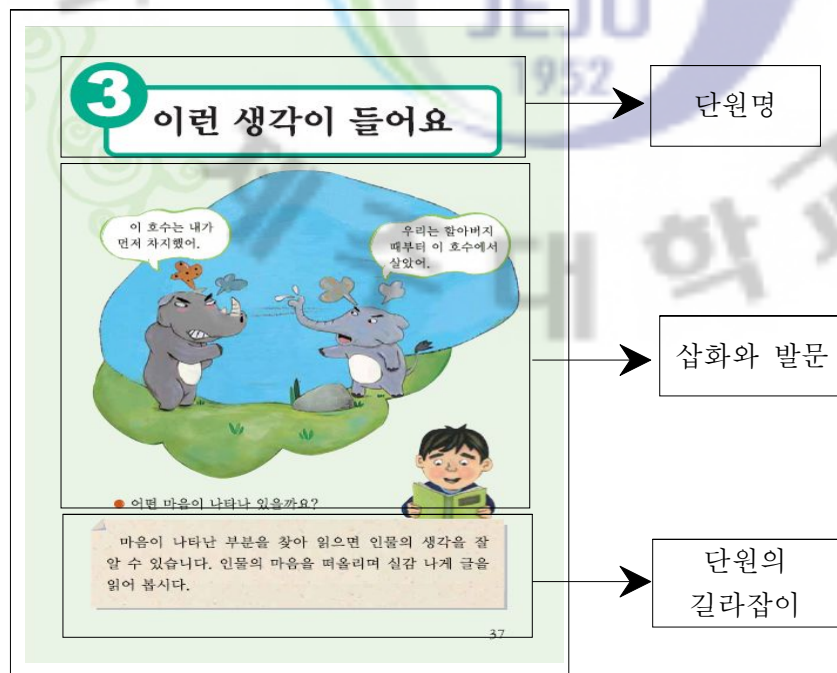


[그림 III-2] 교과서 도입 학습의 예

- 4) 학습 내용의 개요는 단원 전체의 핵심 내용으로 한 눈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도입 학습'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5)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 소통을 하는 활동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에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7차 교과서의 단원의 '도입 학습'에는 두 페이지 중 한 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제시했었다. 2007 개정 교과서의 단원 '도입 학습'은 한 페이지로 분량이 축소되어 전략과 방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도입 학습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각 단원의 처음 부분에 1쪽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1~ 4학년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도입 학습은 총 159개이다. 1~ 3학년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4학년은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2권으로 제시되어 있다.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단원명, 삽화와 발문,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단원의 길라잡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부분을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III-3]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

6) 3학년 1,2학기 『듣기·말하기·쓰기』는 합존이기는 하지만 학습 내용의 통합본이 아니어서 나누어서 판단하였다.

단원명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지내요”, “상상의 날개를 펴고”와 같이 해당 단원의 성격과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게 진술되어 있다.

삽화는 도입 학습에서 단원 학습 내용이나 언어 사용 목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삽화가 제시되는 형태는 그림 자료만 제시되기도 하고 말풍선을 활용한 학습자의 대화 형식, 책 주인공들의 대화, 상상의 세계에 대한 생각 주머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삽화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학습할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삽화를 통해서 본시 학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발문은 삽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물음이다. 객관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발문보다는 “내가 그림 속의 여자아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선생님께서 왜 당황하셨을까요?” 처럼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도와주는 발문이 대부분이다.

도입 학습의 맨 하단에 있는 단원의 길라잡이는 학습자에게 단원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언어 사용 상황이나 필요성 및 중요성, 개념 등 단원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은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도입 학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과서 단원의 첫 페이지에 1쪽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고 본시 학습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40분 수업이 아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배경지식 활성화, 학습 목표의 뚜렷한 인식이다.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한 차시의 학습의 동기유발이 아닌 전체 단원 학습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학습 목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과 필요성,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도입 학습에서 학습 내용을 압축적으로 안내하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도입 학습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습 동기 이론

2절에서는 III장의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의 하나인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석의 유형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Keller의 ARCS 동기유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ARCS 동기유발 이론

Keller는 인간의 동기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인들과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을 전략과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이 바로 ARCS 동기유발 이론이다. 김정임(2006)에 따르면 Keller는 4가지의 동기 요소는 동기 구성 요건이 아니라 동기유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적절한 동기 수준을 지니기 위해서는 동기의 각 요건이 일정한 최저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ARCS 동기 이론의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하며 수업에서 동기유발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한 학습동기 구성 요소를 '주의집중'(A:attention), '관련성'(R:relevance), '자신감'(C:confidence), '만족감'(S:satisfa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ARCS 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

본 연구에서는 ARCS 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유형 중 동기유발 유형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과 하위 범주를 마련하였다. 먼저 ARCS 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와 하위 범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주의집중 요소이다.

주의집중의 범주에는 세 가지의 하위 범주들이 포함된다. 첫째, 지각적인 주의환기(perceptual arousal)의 전략은 새롭고, 놀라우면서, 기존의 것과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정보를 교수-학습 상황에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유발·유지 시킨다는 전략이다. ... 또한 이것은 무엇이 그들의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냐에 관계된 것으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자료를 투입시키는 신기한 점

근을 사용하여 호기심, 놀라움을 만들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전희경, 2006. p.24)

ARCS 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 동기유발 요소인 주의집중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동기유발 유형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한 ‘지각적인 주의환기’ 전략만 소개하였다.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 주의를 유발하고 유지시킨다는 전략의 내용을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내용 중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삽화와 발문은 주의집중 측면으로 보고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동기 이론의 요소인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성(Relevance)은 목적과 과정의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목적은 유용성에 관한 것으로, 수업 내용이 학습자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할 때 더욱 높은 학습동기를 유지한다. 이 범주에의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첫째, 친밀성(intimacy)이란 학습자의 경험과 가치와 관계가 되는 구체적 용어, 예문, 개념 등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사람들은 이미 친숙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나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관련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 둘째, 목적지향성(goal orientation)의 전략으로, 결과 측면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 해서 교수의 목표와 실용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나 예문을 제공하고, 성취 목적을 제시 하거나, 학습자 스스로에게 성취목적이나 그 기준을 세우도록 할 수도 있다. (전희경, 2006. p.25)

학습자는 자신과 관계된 학습을 할 때에 성취 의욕이 높아진다고 한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학습자 생활 주변의 자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며, 수업 내용 또한 학습자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다. 동기유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관련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의 세 가지 하위 범주 중 두 가지인 친밀성과 목적지향성에 착안하여 삽화와 발문 중 학습자의 관계성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친밀성과 목적의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동기유발 요소인 자신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투여하는 노력이 목표의 획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신념을 말한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습자가 실수를 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학습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도전감과 모

힘심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김정임, 2006. p.27)

학습자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동기유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의 도전감을 심어주는 삽화와 발문을 자신감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 동기유발 구성요소는 만족감이다. 만족감은 학습자가 노력하고,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일치했을 경우, 학습동기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조되는 동기 유발 요소이다. 즉 만족감은 다른 구성요소인 주의집중이나 관련성, 자신감 처럼 학습초기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보다 일단 유발된 동기를 꾸준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 이론을 살펴본 목적은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는 전제하에, 동기유발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유형과 하위 범주를 알아보는데 있으나 만족감 구성요소는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IV.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별 분석

1. 분석 대상과 방법

단원 도입 학습의 삽화와 질문 유형 분석과 단원의 길라잡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이다. 2007 개정 교육 과정 시행 후 현장에 도입된 초등학교 1~4학년 국어 교과서 총 20권의 159개 도입 학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입 학습을 크게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삽화와 발문 분석은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형 분석을 하였다. Keller의 학습동기이론을 참고하여 유형 분석 기준을 동기유발, 학습목표주지,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으로 나누고 156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삽화와 발문을 분석할 시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가장 선별이 쉬운 학습목표주지 유형부터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삽화와 발문(특히 발문에 초점을 맞춤)과 단원의 길라잡이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경험, 학습 내용과 관련한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발문 등은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을 분류하였고, 다음은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 분석은 교사와 학습자가 단원 학습의 방향과 학습 문제를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파악하는 등 단원의 본시 학습에 앞서 단원의 성격을 결정짓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의 분석이 아닌 단원의 길라잡이는 어떤 구성 요소로 진술되었는지, 진술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도입 학습을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 하겠다. 도입 학습의 기본 구성은 단원명, 삽화, 삽화 아래의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인데, 삽화와 발문은 실과 바늘처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삽화와 발문은 하나로 보고 유형 분석하였다. 도입 학습에서 삽화와 발문과 단원의 길라잡이가 나누어7) 있기는 하지만 굳이 두 부분의 연계성 측면까지 논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둘 사이의 관계(연결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검토하지 않았다. 8)



[그림 IV-1]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및 단원의 길라잡이

2. 삽화와 발문부분 분석

가. 삽화와 발문의 의미

삽화는 도입 학습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어 사용 목적과 관련지어 제시되

- 7) 단원의 길라잡이가 글상자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사이가 구분되어 보인다.
- 8) 실제 삽화와 발문과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이 대단원 학습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면은 없는지,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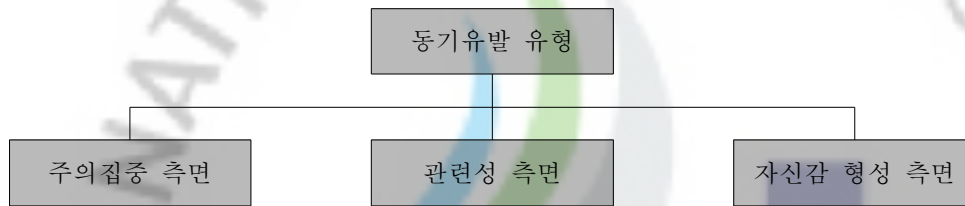
고 있다. 삽화와 발문에 관련된 연구(신현재 외, 2009)에 의하면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삽화나 사진 등을 국어 사용 목적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하단에 발문을 넣는다”(p.36)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도입 부분에서 주로 삽화를 제시하고 이 삽화와 관련하여 해당 단원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p.37)라고 밝혔다. 이인원(2008)은 “삽화는 단원 학습 내용에 대한 예시, 학생의 배경 지식 동원, 학습 동기의 유발 등 여러 목적의 기능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p.14)”라고 진술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삽화와 발문의 목적은 단원 학습 목표를 미리 인식하고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학습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자도 교실 수업 상황에서 삽화와 발문을 활용해 동기 유발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학습 목표를 찾아 보기도 한다.

나.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

여기서는 도입 학습에 삽화와 발문이 단원 학습 목표 인식과 학습 동기 및 성취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유형은 크게 동기 유발 측면과 동기 유발과 관련이 적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유형을 찾기 위해 앞 II장에서 논의된 Keller의 학습 동기 이론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기유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삽화와 발문의 측면을 3가지로 압축해⁹⁾ 보았다.

9) ARCS 동기 이론에서 동기유발의 네 번째 요소인 만족감은 앞서 II장에서 밝혔듯이 학습자가 이미 동기유발이 된 후 그 동기를 유지시키는 역할의 의미가 커서 본 연구의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IV-2〉 동기유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삽화와 발문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의집중 측면으로 해당 내용으로는 상상의 세계나 만화, 동화 속 이야기 등을 통해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이가 작고 귀여운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¹⁰⁾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두 번째 관련성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학습자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또래의 대화나 활동 모습’ 과 학습자에게 학습의 필요성과 목적을 심어줄 수 있는 ‘나도 저것이 필요 했었어’ 의 생각을 갖게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세 번째 자신감 형성 측면은 ‘나는(도) 할 수 있어!’ 의 도전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삽화와 발문이다.

다음은 동기유발 측면과 관련이 적은 삽화와 발문으로 학습목표주지 유형과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에 대한 정의를 ‘본시 학습(이해학습, 적용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도입 학습 부분에서 본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활동을 단순화 하여 미리 제시하고 실시하는 것’ 으로 한다. 선수학습 유형에 대한 예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다.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은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점검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예도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다.

1) 삽화와 발문의 유형

삽화와 발문의 유형으로는 앞 논의 처럼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10) 특히 저학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더 재미있어 하고, 활동에 흥미를 갖는다.

인 태도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 측면,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앞으로 학습할 학습 목표와 능동적으로 연관시키는 배경지식 활성화 측면, 삽화와 질문 자체가 차시 학습을 시작하기 전 하나의 학습 활동이 되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1)

넓은 의미에서 ‘도입 학습’의 기능이 학습 동기 유발과 문제 의식 고취라는 면에서 볼 때 삽화와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어느 일정 기준에 의해 명확히 맞아 떨어지기 어렵다.12)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유형에서는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어 분석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분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 동기유발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유형으로 학습 동기는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13) 이다. 앞서 밝힌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을 실제 교과서 삽화와 발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유형 분류 기준을 통해 실제 삽화와 발문 분석 시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12) 또한 삽화를 통한 제시가 어디까지나 교사나 학습자의 주관성에 의해 전달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도나 연구자의 분류 기준에 의한 유형 분석이 객관적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13) “도입 부분에서 주로 삽화를 제시하고 이 삽화와 관련하여 해당 단원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고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의 경우 삽화의 역할은 동기유발측면이 크다.



<표 IV-2>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

(1) 학습자 호기심 유발



● 시나 이야기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 상상의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그림 IV-3 호기심 유발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 『읽기』 이고 두 번째는 1학년 2학기 『쓰기』 의 삽화와 발문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삽화와 발문을 보며 시나 이야기의 세계에 대해 상상해보고, 만약 나에게 상상의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2) 학습자 흥미 유발



<그림 IV-4 학습자 흥미 유발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1학년 2학기 『듣·말』 이고 두 번째는 4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이다.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삽화를 확인하면서 ‘에이~저거 아닌데, 저것도 모르나?’와 같은 반응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삽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엉뚱한 표정과 몸짓으로 하여금 학습자들은 ‘재미있다’ 반응, 즉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3) 친밀감 형성



<그림 IV-5 친밀감 형성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4학년 2학기 『읽기』 이고 두 번째는 2학년 2학기 『듣·말』 의 삽화와 발문이다. 학습자들은 학습자와 비슷한 또래의 대화나 실제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모습과 비슷한 삽화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4) 필요성 및 목적 의식 형성



<그림 IV-6> 필요성 및 목적 의식 형성 삽화와 발문

4학년 2학기 『쓰기』의 삽화와 발문이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즉 이런 유형의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5) 자신감 형성



<그림 IV-7> 자신감 및 도전감 유발 삽화와 발문

2학년 1학기 『듣·말』의 삽화와 발문이다. 삽화의 내용을 보면 남자아이가 “이것은 노랑고 길쭉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바나나, 연필, 우산 등을 떠올리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 삽화를 보며 바나나가 정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는 것인데 학습자들은 삽화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즉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감을 심어 주는 동기유발 유형이다.

나) 학습목표주지¹⁴⁾

대단원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이 차시학습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목표를 미리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을 미리 간단하고 쉽게 단순화 시켜 제시하는 내용이다.¹⁵⁾ 즉 삽화와 질문 자체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예시 학습 활동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¹⁶⁾ 배경지식활성화 유형과의 다른 점은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경험이나 기존의 지식의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학습목표 주지 유형은 학습목표 해결을 위한 학습활동을 직접 삽화와 발문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연구에서는 다른 발문에 비해 발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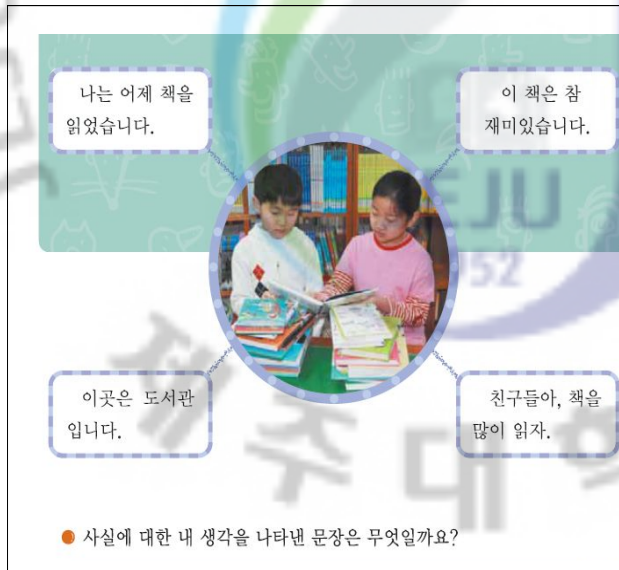
14) 도입 학습의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제공한 내용이 대단원학습목표 형식의 진술이 아니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대신 학습 내용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본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에서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주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학습목표주지’라고 하였다.

15) 수학과 교과서에 ‘문제 푸는 방법 찾기’라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데 그 중 ‘단순화 하기 방법으로 해결하기’라는 방법이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숫자의 크기나 문제의 크기를 단순화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학습목표주지 유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해야 할 내용은 같지만 본시 학습 활동보다 단순화 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16) 교실 수업 상황에서 수업활동 전개 시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고 학습활동을 안내한다. 이 학습활동은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하는 활동이다. 공부할 문제와 관련된 동기유발도 아니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학습목표주지’유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부할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즉 도입 학습에서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밝히고 있는 학습 내용 해결하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보면 되겠다.

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다. 문장을 구별해 보는 활동이나 문법 요소를 확인해 보는 활동 등과 같이 발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과 시를 읽어보는 학습 내용의 경우 한편의 시가 제시된 삽화와 발문을¹⁷⁾ 학습목표주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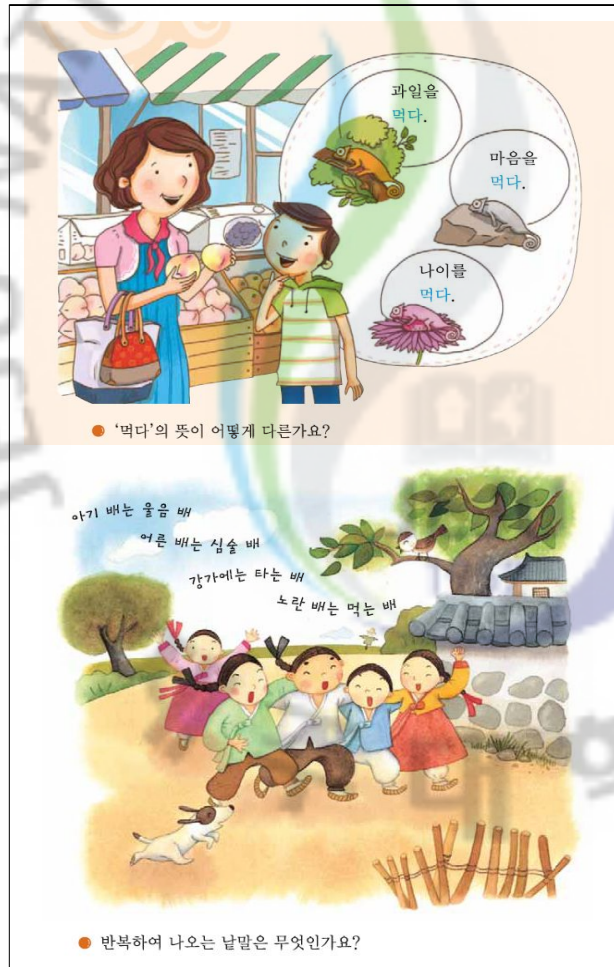
(1) 문장 구별 및 문법 요소 확인



<그림 IV-8 문장 구별 삽화와 발문>

3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여러 문장 중에서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을 나타낸 문장을 찾는 내용이다. 단원의 학습 내용도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을 찾아보는 것으로 본시 학습에서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미리 도입 학습 부분에서 단순화시켜 제시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목표를 미리 주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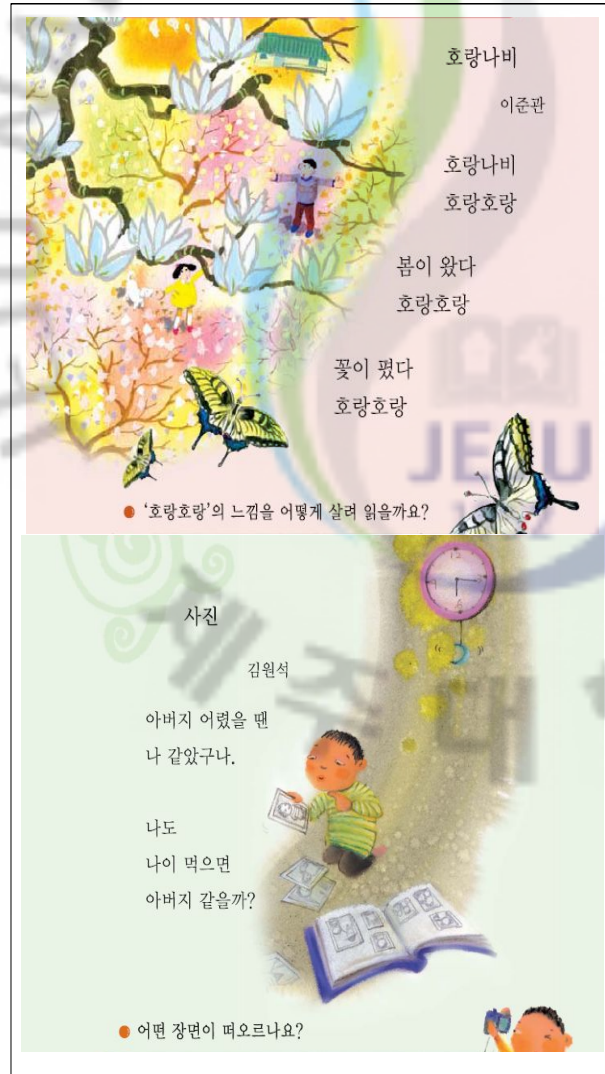
17) 시의 경우, 삽화는 대부분 한편의 시(전문)가 제시되어 있고 발문으로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학습 목표가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의 경우 삽화와 발문 자체가 본시 학습에서도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과 같다. 다만 본시 학습 활동은 '도입 학습'에 비해 활동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뿐이다.



<그림 IV-9 문법 요소 확인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4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앞서 논의한 문장 구별 삽화와 발문 측면과 비슷한 유형이다. 낱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아보는 학습 내용에 대한 예시 학습 활동 성격의 삽화와 발문이다. 아래는 3학년 1학기 듣·말 교과서의 삽화와 발문이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알아보는 학습 내용 해결을 위해 도입 학습에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의 예를 확인해본다. 즉 학습 내용을 본시 학습 시작 전에 주지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2) 시 삽화



<그림 IV- 10> 시에 관한 삽화와 발문

2학년 1학기과 1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이다. 첫 번째는 시를 읽고 '호랑호랑'의 느낌을 어떻게 살려 읽을까요? 라고 발문하고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어 보는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 또한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발문하고 있는데, 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시

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이다.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이 본시 학습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본시 학습에서는 다른 시가 제공되는 것과 학습 활동이 좀 더 다양해지는 차이만 있다. 즉 본시 학습 전에 도입 학습에서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시 학습 활동을 하는 삽화와 발문으로 볼 수 있다.

(다) 배경지식활성화

학습목표 이해를 위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삽화와 발문의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개인에 따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을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발문(~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발표하게 하는 발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발표(~(학습 목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주로 학습자의 경험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및 정보를 묻는 발문에 초점¹⁸⁾을 맞추었다.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의 경우 삽화의 캐릭터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리는 그림 주로 등장한다.

18)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전 활동에 관한 연구(이인원,2008)에서는 ‘읽기 전’ 활동 분류에서 배경지식 활성화 측면을 ‘~에 대한 경험 말해보기, ~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말해보기, ~때에 대한 경험 말해보기’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내 생각 말해보기’ 로 분류하였다.

(1) 경험 회상



<그림 IV-11> 경험 회상 삽화와 발문

2학년 2학기 『쓰기』와 1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발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친구를 초대하여 본 적이 있나요?” 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여 학습 목표에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발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삽화와 발문 역시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발문하고 있고 발문에 대해 학습자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글쓴이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의 학습 문제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다.

(2) 기존 지식 발표



● 내가 아는 말놀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림 IV-12 기존 지식 발표 삽화와 발문>

2학년 1학기 『듣·말』의 삽화와 발문이다. “내가 아는 말놀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문에 학습자가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말놀이를 즐겁게 해 보는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발표 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다.

(3) 학습 내용과 관련한 생각 발표



●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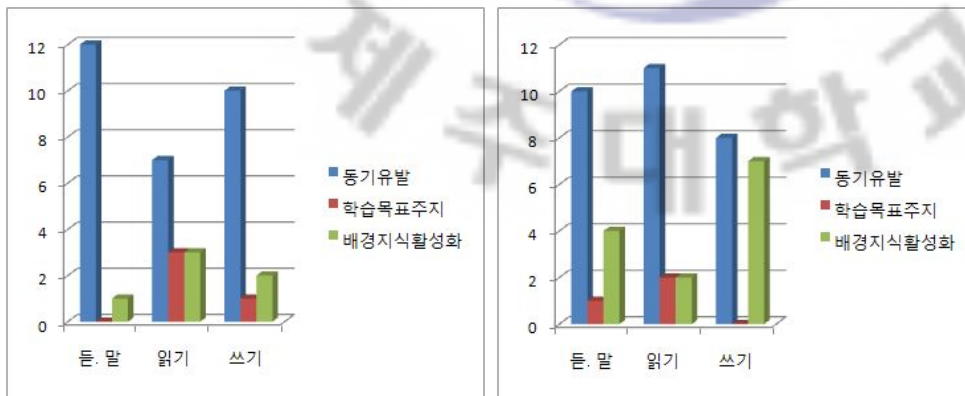
<그림 IV-13 학습 내용과 관련한 생각 발표 삽화와 발문>

4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이다.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의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 것’에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요?”라고 발문하고 있다.

나) 분석 결과

[그림 IV-14] 부터 [그림 IV-15] 는 1~4학년 국어과 교과서의 삽화와 발문 159개를 동기유발, 학습목표주지, 배경지식 활성화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그래프화 것이다. 그래프 결과를 확인하며 교과서의 도입 학습 삽화와 발문 유형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IV-14] 1,2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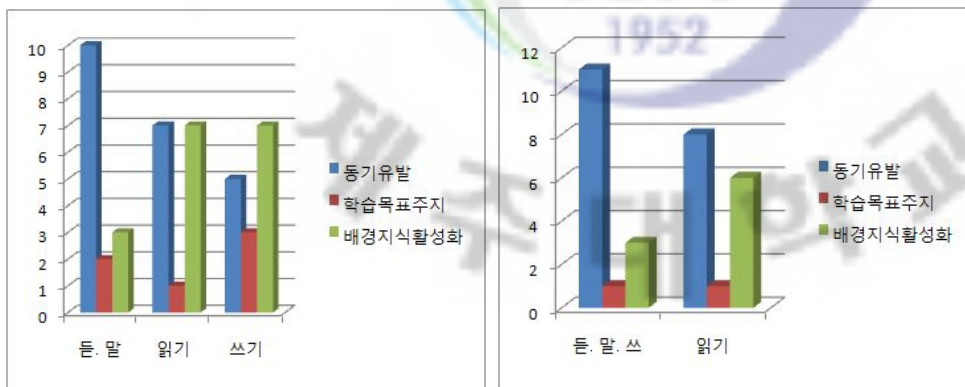
1학년의 결과 그래프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9개,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 6개, 선수학습 유형이 4개로 나타났다. 저학년의 학습 수준에 비추어 보거나 학습 활동 시 주의집중 기간이 짧다는 점, 흥미롭고 호기심이 많은 발달 수준에 맞게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적절하게 배당되었다고 판단된다.

2학년의 결과 그래프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9개, 선수학습 유형이 3개,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 13개로 나타났다. 저학년인 1학년과 비슷하게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2학년의 특징은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의 비중이 1학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저학년이긴 하지만 학교 생활을 1년 동안 경험하였고, 학습자의 발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점을 유념해 볼 때 학습자의 경험과 기존 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 많이 배당되지 않았나 판단된다.

특히 『쓰기』에서 단원의 절반 가량이 이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글을 쓰기 전에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발문이 많았다. 쓰기를 어려워 하고 쓰기 학습에 부담감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에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경험과 연관지어 생각을 꺼내봄으로써 쓰기 전략을 쉽게 학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Ⅳ-15] 3,4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프



3학년의 결과 그래프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2개, 학습목표주지 유형이 6개,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이 17개로 나타났다. 동기유발 유형이 적절히 배당되어 있으며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2학년의 경우처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 목표주지 유형도 각 교과서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의 경우 『읽기』와 『쓰기』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습자가 중학년이 되면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 발표해 보는 삽화와 발문이 많았다.

4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결과 그래프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19개, 학습 목표주지 유형이 2개,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이 9개로 3학년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삽화와 발문 유형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1학년의 경우에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기유발 유형이 월등히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학습목표주지 유형은 모든 학년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1~4학년 수준에서는 도입 학습 전 개 시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학습목표를 해결하는 조금은 딱딱한 진개의 학습활동에 대한 안내보다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삽화와 발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단원의 길라잡이부분 분석

여기서는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를 요소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실제 수업 상황 속에서 도입 학습의 단원의 길라잡이는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읽고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단원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 성취 의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봄으로써 교과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석이라 판단된다.

일정한 구성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옳다. 그르다’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씩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정을 요하는 단원을 찾아 더 좋은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검토이다.

가. 단원의 길라잡이

교과서 도입 학습 하단에 글상자의 형태로 위치한 ‘단원의 길라잡이’는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문제)¹⁹⁾과 학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 방법 등을 상세화하여 1~4개의 문장²⁰⁾으로 풀어 설명해주고 있다. ‘단원의 길라잡이’에 대해 언급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

19) 대단원 학습 목표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용 지도서 상에 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20) 1학년 1학기 단원에는 1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단원의 길라잡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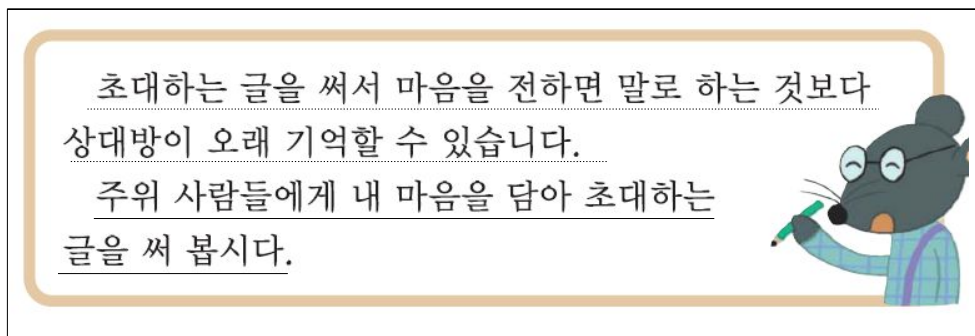
삼화 아래쪽에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문단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번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성취기준(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에 대한 서술을 한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집필진 회의 자료)

삼화 하단에는 단원 목표를 상세화하는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학습 목표 관련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을 설명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성취 기준(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 국어과 학습방법)

위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 구성을 두 개의 문단으로 인식해야 할지, 몇 개의 문장의 나열로 봐야할지 명확히 정해진 내용이 없다. 이 연구에서는 ‘문단이다, 문장이다’ 확실한 구분을 짓지 않고 구성 형태를 분석하였다. 다만 학습 문제가 제시된 문장을 기준으로 앞에 제시된 문장은 학습 문제를 제시한 문장과는 별도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군’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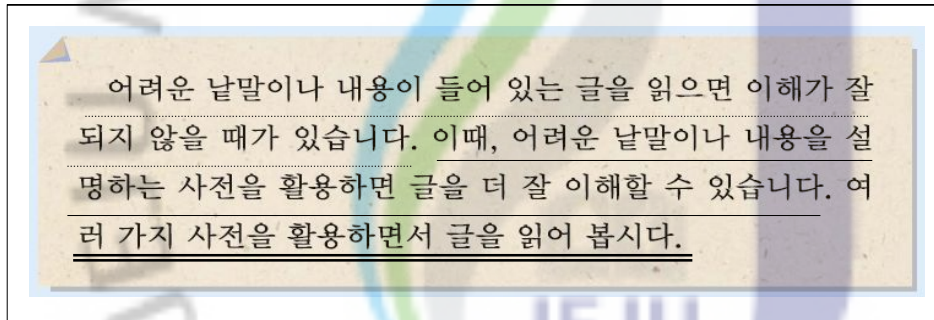
실제 교과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앞서 말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언어 사용 상황이나 필요성 및 중요성, 개념 등 단원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은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문제)을 제공한다. 학습 내용이 두 개인 경우에 한 개의 학습 내용에 관해서만 필요성이나 방법 등을 설명한 구성도 있고, 두 개의 학습 내용을 나누어서 두 개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은 단원의 길라잡이를 앞에서 말한 두 부분으로 나눠본 것이다.



[그림 IV-16] 필요성+학습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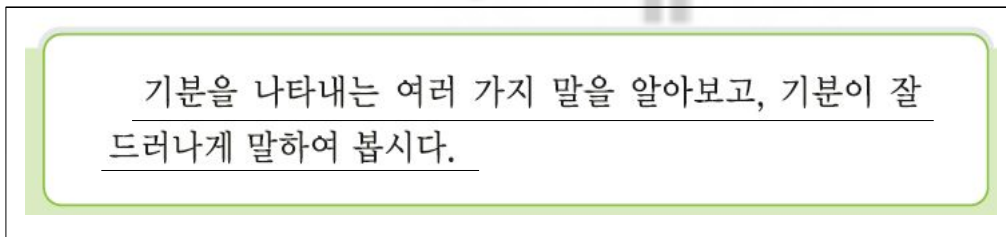
첫 번째 점선 부분은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언급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학습할 내용(문제)이 제시되어 있다. 즉, 구성 형태는 ‘필요성+학습내용’이다. 다른 단원의 길잡이를 보면



[그림 IV-17] 뒷받침+방법+학습 내용 형태

첫 번째 점선부분은 뒷 문장을 위한 뒷받침 문장이고 두 번째 점선부분은 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마지막 점선부분은 학습 내용(문제)가 설명되어 있다. 즉, 구성 형태는 ‘뒷받침+방법+학습 내용’²¹⁾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성 형태의 ‘단원의 길라잡이’를 살펴보면



[그림 IV-18] 학습 내용 형태

21) 구성 요소 분석 시, 3개의 문장이 진술된 경우 “①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여러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여러 의견을 비교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와 같은 경우에 앞 논의처럼 문단,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의해 구성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①번은 ②번 제시를 위한 뒷받침 문장이고, ②번은 여러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해결방법, 즉 ‘방법’이다. 그리고 ③번 문장은 ‘학습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③번 ‘학습 내용’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 및 중요성의 관점으로 ①번과 ②번 문단을 묶어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학습 문제 문장을 기준으로 앞 문장은 별도의 생각을 나타낸 문장으로 판단하였다.

원칙적으로는 2~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1학년 1학기 학기 초에 학습하는 단원의 ‘단원의 길라잡이’ 경우에는 저학년 학습자에게 문장의 길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어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 내용만 제시되었다.

위 세 개의 단원의 길라잡이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는 ‘필요성 및 중요성 + 학습 내용’ 형태와 ‘뒷받침 문장 + 필요성 + 학습 내용’ 형태, ‘학습 내용’만 제시된 형태와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학습 내용이 제시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단원의 길라잡이에 빠지지 않고 제시된다.

나.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 정의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 형태를 이루는 각 요소를 설명한 다음, 1~4학년까지의 『듣·말』, 『읽기』, 『쓰기』, 『듣·말·쓰』의 단원의 길라잡이 문장 구성 형태를 분석하겠다.

아래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요소 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IV-1>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요소

요소	설명
필요성 및 중요성 ²²⁾	“(학습 내용 관련)하면~좋습니다. ~하면(~때에) ~있습니다’ 등 과 진술로 학습 내용의 필요성 즉 ‘왜 이 학습을 해야 하는가’, ‘왜 이 학습이 필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설명이다.
방법	“할 때에는 ~합니다.’ 등 과 진술로 학습 내용이나 개별 언어 사용 상황 시에 학습 내용(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조언, 정보)이 제시된 설명이다.
뒷받침	뒤에 진술된 문장을 보조하거나 부연해주는 설명으로 구성 요소 분석 시 명확히 요소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뒷받침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당위성	필요성이나 방법, 언어 사용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마땅히 학습해야 한다는 “~합니다’ 식의 설명이다. ²³⁾
담화/글의 종류 설명	단원의 언어 활동 목적에 해당하는 담화와 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발문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학습 내용(문제)	‘뵘시다’ 식 의 진술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 목표를 압축적으로)에 대한 설명이다.

다. 1~4학년 교과서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분석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분석 시에 구성 요소의 명칭을 표 안에 모두 표시하기 어려워서 필요성 및 중요성은 ‘필요성’으로, 담화/글의 종류 설명은 듣·말 교과서의 경우에는 ‘담화’로,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글’로 줄여서 표시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문제)도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구성 형태가 ‘필요성+필요성+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필요성을 한번만 표시하였다.

<표 IV-1> 1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1	바른 자세로 들어 뵘시다. 나를 자신 있게 소개하여 뵘시다.	내용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여 말하면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를 필요성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듣고,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해 뵘시다.	내용
2	기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알아보고,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여 뵘시다.	내용	소개하는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생각하여 말하면 좋습니다. 소개하는 말을 듣는 방법을 알아보고,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소개하는 말을 해 뵘시다.	방법 내용
3	인사말을 하면 예의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황	필요성 내용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 말하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말	필요성 내용

22) 필요성과 중요성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지만 평소 상황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교과서 분석 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같이 묶어 분류하였다.

23)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글을 써 뵘시다.” 의 경우이다.

	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해 봅시다.	을 알아보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 봅시다.	
4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들으면,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인사말을 할 때에는 밝은 표정과 또렷한 목소리, 공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인사를 받는 사람이 같아도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집니다.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아보고, 알맞은 인사말을 나누어 봅시다.	방법 내용
5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 생각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 생각을 말하여 봅시다.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소개할 내용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소개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여 봅시다.	방법 내용
6	흥내 내는 말을 넣어 말하면 재미있고 실감 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내 내는 말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고, 흥내 내는 말을 넣어 재미있게 말하여 봅시다.	내 기분을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며 말하면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7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들으면 인물이 한 일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1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보면 1학기 초에는 학습자의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1,2단원에서 학습 내용만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모두 학습 내용과 더불어 필요성이나 중요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었다.

<표 IV-2> 1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낱말을 바르게 읽어 봅시다.	내용	시나 그림 동화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여 봅시다.	내용
2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내용	글에는 중심 낱말이 있습니다. 중심 낱말을 찾으려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심 낱말을 생각하며 글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3	문장 부호에 알맞게 글을 띄어 읽으면 뜻을 알기 쉽습니다. 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하며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글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며 글을 읽으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4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를 읽어 봅시다. 그리고 그림을 글과 관련지으며 그림 동화를 읽어 봅시다.	내용	글을 읽고,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면 대강의 내용을 알기 쉽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방법 내용
5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글의 내용을 알기 쉽습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글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당위성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내용
6	옛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옛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을 찾아 표현하여 봅시다.	글 내용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생각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7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내용

1학년 『읽기』의 경우 『듣·말』과 마찬가지로 학기 초인 1,2 단원에서 학습 내용만 제공되어 있었다. 1학기 6단원에서는 글의 종류인 옛이야기의 뜻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고, 언어 사용 목적이 정서표현인 단원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었다. 학습자의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을 수용하는 성격이고 다른 단원에 비해 학습 내용이 수월하다는 느낌이 있어 학습 내용만 제공되었을 거라고 분석하였다.

<표 IV-3> 1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형식	2학기	
1	바른 자세로 앉아 글씨를 써 봅시다.	내용	일기를 쓸 때에 제목을 붙이면 일기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내용을 떠올리기도 쉽습니다. 오늘 겪은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려 일기를 써 봅시다.	방법 내용
2	순서에 맞게 글씨를 바르게 써 봅시다.	내용	글을 쓸 때에는 글자를 바르게 쓰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반듯하고 정확하게 글자를 써 봅시다.	당위성 내용
3	글자를 정확하게 써 봅시다.	내용	글을 쓸 때에 내 생각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생각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자세히 써 봅시다.	당위성 내용
4	오늘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써 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필요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일기로 써 봅시다.	내용	친구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성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글을 써 봅시다.	내용
5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내용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당위성 내용
6	재미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시를 써 보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내용	내 생각을 쓸 때에는 생각을 분명히 나타내고, 생각에 알맞은 내용을 써야 합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당위성 내용

		내 생각에 알맞은 내용을 담은 글을 써 봅시다.
7		시나 이야기를 읽으면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고, 바닷속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봅시다.

1학년 『쓰기』의 경우 학습 내용만 제시된 단원이 5개, 당위성과 학습 내용이 제시된 단원이 4개로 1학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았다. 1학기 1,2,3단원의 경우에는 학기 초라는 점과 글자를 바르게, 정확하게 써보는 학습 내용 자체가 학습 태도에 관한 내용이라서 필요성이나 다른 구성 요소가 반드시 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학기 5단원의 경우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의 학습 내용에 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의 설명보다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하는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표 IV-4> 2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1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실감 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고, 인물에 알맞은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실감 나게 표현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인형극에는 실감 나게 표현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인형극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형극의 내용을 역할놀이로 꾸며 봅시다.	방법 내용
2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대상의 모양이나 쓰임에 주의를 하면서 들으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과 추측하는 방	방법 내용	우리말에는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이 많습니다.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히 발음하여 봅시다. 그리고 설명하는 말을 듣고,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하여	필요성 내용

	<p>법을 알아보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하여 봅시다.</p>	<p>봅시다.</p>
<p>3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봅시다.</p>	<p>내용 충고하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충고하는 말을 할 때와 충고하는 말에 대답할 때의 방법을 알아보고, 충고하는 말과 대답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p>	<p>방법 내용</p>
<p>4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하는 방법과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 봅시다.</p>	<p>필요성 내용 말놀이를 하다 보면 말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낱말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놀이를 알아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말놀이를 해 봅시다.</p>	<p>필요성 내용</p>
<p>5 듣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p>	<p>필요성 내용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 표정을 살피며 말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조사해 보고, 듣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p>	<p>필요성 내용</p>
<p>6 이야기 속에는 내 생각을 말하여 주고 싶은 인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까닭을 생각하여 보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봅시다.</p>	<p>뒷받침 내용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조리 있게 말하여 보면 이야기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봅시다.</p>	<p>필요성 내용</p>
<p>7 말놀이를 하면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놀이’와 ‘다섯 고개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말의 재미를 느끼며 친구들과 즐겁게 말놀이를 해 봅시다.</p>	<p>필요성 내용 이야기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야기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봅시다.</p>	<p>필요성 내용</p>

2학년 『듣·말』 2학기 2단원의 단원의 길라잡이의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어떤 구성 요소로 구분해야 할지 혼동되었다.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해보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필요성으로 구분하였지만 첫 번째 문장보다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

<표 IV-5> 2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1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반복되는 말이나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으면 실감이 납니다. 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방법 내용	재미있는 말, 인물의 마음이나 기분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2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보시다. 그리고 뜻이 반대인 말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어 봅시다.	내용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그리고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봅시다.
3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읽으면 인물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떠올리며 실감나게 글을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글에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알아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
4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하며 재미있게 글을 읽어 봅시다.	방법 내용	글에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글에 나타난 마음을 생각하며 실감나게 읽어 봅시다.
5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설명하는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낱말 사이의 관계도 알아봅시다.

6	글에는 의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견을 생각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 내어 글을 읽어 봅시다.	의견이 나타난 글을 읽어 봅시다. 글을 읽고,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7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며 봅시다.	시와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 느낌이 필요합니다. 시의 느낌을 살려 소리 내어 읽고, 이야기의 내용에 맞게 이야기를 꾸며 써 봅시다.
8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여 글을 읽으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필요성 내용

2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의 특징은 ‘뒷받침 문장+학습 문제’의 형태가 다른 단원에 비해 많다. 2학기 4단원의 경우 1학기 3단원과 같은 2개의 성취 기준이 2번 반복되는데 1학기 때 학습한 내용이라고 해서 단순히 제시하기 보다 1학기 때보다 단원의 길라잡이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IV-6> 2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1	오늘 보고, 듣고, 느꼈던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일기로 쓸 수 있습니다.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써 봅시다.	방법 내용	일기를 자세히 쓰면 나중에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자세히 써 봅시다.
2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기 위하여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방법 내용	좋아하는 책을 소개할 때에는 책 이름, 주인공, 줄거리, 느낌 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합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알려 주고 싶은 것을 써 봅시다.		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3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 하거나 글로 써서 전하면 됩니다.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알맞은 까닭을 들어 부탁하는 글을 써 봅시다.	뒷받침 내용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 먼저 부탁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알맞은 내용을 담아 부탁하는 글을 써 봅시다.
4	쪽지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쪽지에 써서 전하여 봅시다.	필요성 내용	초대하는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 초대하는 글을 써 봅시다.
5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글을 써 봅시다.	당위성 내용	여러분은 좋아하는 놀이가 있나요? 그런데 이 놀이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 방법을 설명하여 주어야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6	내 생각을 글로 전할 때에는 내 생각에 알맞은 까닭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을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까닭을 들어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당위성 필요성 내용	같은 일에 대하여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알맞은 까닭을 들어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여야 합니다. 읽을 사람에게 내 의견이 잘 전달 되도록 알맞은 까닭을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 봅시다.
7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때에 그 마음을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필요성 내용	다른 사람의 시나 이야기를 새로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앞 뒤 내용을 상상하여 재미있게 꾸며 써 봅시다.

2학년 『쓰기』 2학기의 7단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나 이야기를 새로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문이 제시되어 있다. 2학년 『쓰기』 1학기 6단
원 단원의 길라잡이부터 3개의 구성 요소가 등장한다. 구성 형태가 ‘당위성+필
요성+내용’으로 구성 요소가 3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2학년 학습자의 수준에 설
명이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위성과 필요성 측면의 문장을 한 문장
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표 IV-7> 3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단 원	1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1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 과 몸짓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표정과 몸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등 장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 며 만화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일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며 이야 기를 들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까 닭과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 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2	안내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내하 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안내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중 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듣고, 또 적은 내용을 보면서 말하여 봅시다.
3	훈화는 우리가 바르게 자라 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 담 겨 있는 말입니다. 훈화를 잘 듣고, 말하는 이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생각하여 봅시 다.	담화 내용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고 들 으면 어떤 일에 대하여 좀 더 분명 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 고,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나 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4	전화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없을 때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 다. 전화로 말을 주고받을 때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화로 대화할 때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 전화를 걸고 받아 봅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우리말에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 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하나의 낱말을 넣어 다양한 상황 과 뜻에 맞게 말하여 봅시다.

<p>5 안내할 때에는 듣는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여야 합니다. 듣는이가 금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듣는이를 생각하며 안내하는 말을 해 봅시다.</p>	<p>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절을 좀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전화로 대화할 때의 올바른 예절을 익혀 전화를 걸고 받아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필요성 내용</p>
<p>6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속담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속담에 담긴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해 봅시다.</p>	<p>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주고받아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뒷받침 내용</p>
<p>7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말투는 말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등장인물의 말투, 표정, 몸짓의 변화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감상하여 봅시다.</p>	<p>말과 말투, 표정, 몸짓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하여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필요성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방법 내용</p>
<p>8 우리말에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같은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 보고, 상황에 알맞게 구별하여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뒷받침 내용</p>

3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1,2학년에 비해 문장의 개수가 대부분 1개 더 많아졌음에 따라 구성 형태도 3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학기 보다 1학기의 문장 개수가 더 많아 학습의 비중이 높아 보인다. 1학기에는 1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장 사이에 발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2학기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일 학년내에서 다른 교과 간의 통일성은 찾기 어려워도 같은 교과내에서는 통일되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IV-8> 3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형식	2학기
1	시나 이야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처럼 여러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시나 이야기에 나타난 세계를 상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교하여 봅시다.	뒷받침 내용	문학 작품을 속 인물의 마음이나 성격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작품의 재미와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이나 성격을 알아봅시다. 또, 인물의 마음이나 성격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와 이야기를 써 봅시다.
2	문단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내용과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어 봅시다.	뒷받침 내용	어려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가며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낱말의 뜻을 찾아가며 글을 읽어 봅시다.
3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쓴 글을 ‘의견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합니다. 의견과 그 까닭을 알아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	글 내용	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럿이 함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4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쓴 글입니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어 봅시다.	글 내용	설명서에는 일의 차례나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서를 읽고, 알려 주는 일의 차례나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봅시다.
5	설명서는 물건의 사용 방법이나 일의 순서를 설명한 글입니다. 설명서에 나타난 일의 순서를 파악하여 봅시다.	글 내용	문장은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봅시다.
6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을 말하여 봅시다.	뒷받침 내용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글의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독서 감상문에서 의견과 까닭을 구별하고,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여 봅시다.

7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의 차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일어나는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려 읽어 봅시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인물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만화를 읽어 봅시다.
8	독서 감상문에는 읽은 책의 내용과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 글을 읽어 봅시다.	

3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단원에서 학습하는 글의 종류(문종)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점이다. 1학년 읽기 영역의 글의 수준과 범위(띄어 읽기에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나 짧은 글) 나 2학년 글의 수준과 범위(즐거움,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에 비해 3학년의 글의 수준과 범위는 글의 종류(문종)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독서 감상문, 만화, 애니메이션, 설명서) 제시되어 있다. 이는 3학년 학습자 수준에서는 문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교과서 집필진의 판단으로 보인다.

<표 IV-9> 3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원	1학기	2학기
1	좋은 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책을 읽고 내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뒷받침 내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써 봅시다.
2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보면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의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문단의 짜임에 맞게 글을 쓰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읽는 이의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단의 짜임을 알아보고, 문단의

		짜임에 맞게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3	글을 쓸 때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쓰기도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경험한 일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별하여 글을 써 봅시다.	뜻 내용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낱말을 골라 글을 써야 합니다.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
4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보고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 봅시다.	방법 내용	안내문이나 설명서에 있는 그림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나 설명서를 만들어 봅시다.
5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경험이 있나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이가 알기 쉽게 써야 합니다. 읽는 이가 알기 쉽게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발문 당위성 내용	같은 뜻이라도 문장의 종류를 달리 하여 표현하면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
6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이 잘 드러나게 주장하는 글을 써 봅시다.	당위성 내용	의견을 글로 나타낼 때에 읽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읽는 이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는 이를 고려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7	책을 읽고 난 뒤, 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독서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내 경험과 비교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써 봅시다.	글 내용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고,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주고받아 봅시다.
8	내 생각을 전하는 문장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써 봅시다.	발문 내용	

3학년 『쓰기』의 경우 구성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학습 내용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설명이 되어 있었다.

<표 IV-10> 4학년 『듣·말·쓰』 단원의 길라잡이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기억에 남는 이야기의 장면이 있나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 나게 말하거나 독서 감상문을 써 봅시다.	발문 내용	글쓴이가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삶에 대한 자세를 ‘주제’라고 합니다. 줄거리, 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하여 봅시다.	뜻 내용
2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듣는 목적을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듣는 목적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듣는 목적에 주의하며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당위성 필요성 내용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 차례 또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 봅시다. 또, 간추려 쓴 글을 발표하여 봅시다.	내용
3	친구들과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듣고 말하여야 합니다. 또, 의견이 다를 때에는 내 생각과 비교하여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절차에 따라 토의하여 봅시다.	당위성 내용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의견을 듣고 친구들과 의논하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학급 회의를 하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발문 당위성 내용
4	웃어른께 편지를 쓴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편지를 받은 웃어른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높임 말을 써서 웃어른께 안부, 감사, 사과, 축하의 편지를 써 봅시다.	덧받침 내용	소개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적절한 몸짓을 하거나 알맞은 표정을 지으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함께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가야 합니다. 소개하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봅시다.	방법 내용

<p>‘옥수수’처럼 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봅시다.</p>	<p>뒷받침 내용</p> <p>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기회가 많습니다. 듣는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봅시다.</p> <p>뒷받침 내용</p>
<p>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 좋은 제안은 까닭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문장 성분에 주의하며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p>	<p>정의 방법 내용</p> <p>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꾸거나 고쳤으면 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도의하고 제안하는 글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p> <p>뒷받침 필요성 내용</p>
<p>그림책은 글과 그림, 또는 그림만으로 만든 이야기책입니다. 글과 그림을 잘 어울리게 구성하여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봅시다.</p>	<p>글 내용</p> <p>시화집은 시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글 책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화집을 만들어 전시하고 시를 낭송하여 봅시다.</p> <p>글 내용</p>

4학년 『듣·말·쓰』 교과서의 경우 각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설명되어 있다. 1학기 3단원의 경우 당위성에 대한 요소가 2번 제공되었는데 어떤 학습 내용을 꼭 해야 한다는 식의 진술이 연달아 제공되기 보다 4학년의 학습자 수준에 비추어 학습자 스스로 토의 절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문이 나, 방법의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표 IV-11> 4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단	1학기		2학기	
원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p>시는 반복되는 표현을 살려 읽고, 이야기는 인물의 성격을 살려 읽으면 실감 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어 봅시다.</p>	<p>방법 내용</p>	<p>시에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서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기분이 느껴집니다. 또,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고 이야기를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p>	<p>필요성 내용</p>

<p>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전을 활용하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사전을 찾아가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어려운 낱말이나 내용이 들어 있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낱말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사전을 활용하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 봅시다.</p>
<p>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비교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쓴 글을 읽을 때에 글쓴이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의견과 비교하면 글쓴이의 의견과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난 글을 읽고 내 의견을 제시하여 봅시다.</p>
<p>상대에 따라 예사말과 높임말을 알맞게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임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 예사말과 높임말이 상황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글에 나타난 표현에 따라 글의 느낌이 다릅니다. 글을 잘 읽으려면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글에 나타난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우리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에 그 정보가 담긴 글을 읽습니다. 정보를 찾는 목적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정보를 찾아 비교하면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얻는 정보를 정리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글에는 글쓴이가 등장인물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담겨 있습니다. 글에 담긴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p>	<p>어떤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쓴 글에는 글쓴이나 인물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읽고 토의하여 봅시다.</p>
<p>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적은 글을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기행문을 읽으면 글쓴이의 여행 경험을</p>	<p>이야기에는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을 펼쳐 나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까닭과 인물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p>

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글
쓴이가 다닌 곳, 여행에서 보
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확인하며 글을 읽어 봅시
다.

수 있습니다.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
기를 읽어 봅시다.

4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뒷받침+방법+학습
내용’의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해 설명하
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소개한 다음,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구성 형식으
로 교사와 학습자가 읽었을 경우 큰 무리없이 단원의 학습 방향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진술되어 있다.

라. 분석 결과

각 학년별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특징이나
문제점을 내용 요소를 분석한 표 하단에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합적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4학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학습내용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학습 방법, 글과 담화의 종류, 뒷받침 내용이 적절히 배당되
어 있었다. 다만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 1학기 초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하기 위해 학습 내용만 제공된 단원의 길라잡이가
있었다.

둘째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상에 단원의 길라잡이에 대한 정확
한 용어 사용이 없어 학년간이나 교과서 간에 연계성과 일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1학년 『듣·말』, 『읽기』,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를 보
면 『듣·말』과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는 글상자의 형태로 글만 제공되어
있는데 『쓰기』는 글상자 오른쪽 부분에 내용 상 불필요한 캐릭터가 삽입되어
있다. 캐릭터의 모양이나 특징이 단원의 길라잡이 내용의 부연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의미없는 캐릭터가 『쓰기』의 모든 단원의 길라잡이에 삽입되어 있
어 윗부분에 있는 삽화와 발문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그림이 어지럽게 나열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원의 길라잡이가 2개의 문단인지,

여러 개의 문장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어느 교과서는 3개의 문장을 각 문장마다 들여쓰기 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4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단으로 제시한 단원의 길라잡이도 있었다. 내용 파악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세 권의 교과서마다 단원의 길라잡이가 제시된 문장 모습이 너무 달라서 마치 수정하기 전 단계에의 미완성 교과서라는 느낌이 들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단원의 길라잡이 내용에 관한 지침이 없어서 각 학년별, 교과서별 집필진에 따라 내용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2학년 『읽기』의 경우 1학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단원의 길라잡이와 2학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단원의 길라잡이 사이에서 수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비록 같은 학년이지만 한학기의 차이를 두고 같은 성취 기준을 학습하는데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학습 수준의 차이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교과서의 지면이 낭비된다는 생각마저 든다.

마지막으로는 발문에 대한 사항이다. 학습자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학습할 내용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발문도 필요하지만, 2~3개의 발문이 연달아 제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단원의 학습 방향과 성격을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학습 목표에의 도달을 위해 제공되는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발문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나 안내 없이 학습 내용 제시로 진행되는 것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단원의 길라잡이를 함께 읽어보는 교사 또한 단원의 학습 방향과 학습 정보를 정확히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4.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교과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단원의 길라잡이에 대한 내용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더 효율적인 도입 학습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도입 학습’ 용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상에 교과서 단원 도입면에 대한 학습을 ‘도입 학습’으로 명확히 지칭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교실 현장에서도 학습은 하지만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과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더욱 효과적인 도입 학습을 위한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이해학습이나 적용학습에 비해 도입 학습에는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다는 판단이다.

둘째,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동기유발 유형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눈에 띄는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혹 학습 내용과 직결되기 어려워보이는 삽화나 삽화만 보고는 어떤 언어 사용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삽화와 발문도 있었다. 차시학습에서 학습할 글의 소재가 삽화로 삽입된 경우처럼 집필진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삽화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수업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삽화와 발문을 보고 쉽게 학습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셋째는 단원의 길라잡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앞선 도입 학습의 용어 도입처럼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 수업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칭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IV장의 3절 단원의 길라잡이 결과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글상자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나 형식에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넷째,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에 대한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과 교과서 간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지만 학년 간의 연계성이나 교과서 간의 일관성 측면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분석 중 간간히 같은 학년에서 1학기과 2학

기의 단원의 길라잡이의 수준차이나 교과서 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원의 길라잡이는 그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학습의 방법, 필요성 등 학습 방향에 대해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모든 단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학년 간에 학습 내용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교과서 간에 같은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입 학습의 중앙에 위치한 삽화와 질문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 도입 학습의 하단에 위치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탐색해봄으로써 더 나은 도입 학습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논의를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고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설정하였다.

II 장은 도입 학습의 분석을 위한 국어 교과서 특성에 대한 고찰로, 1절에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였다. 2절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3절에서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 원리와 체제,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다.

III 장은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1절에서는 도입 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았고, 2절에서는 도입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시 필요한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eller의 학습 동기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eller의 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로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 있고, 이 4가지 요소의 하위 범주를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유형 중 동기유발 유형 분석을 위한 범주를 마련하였다.

IV 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입 학습을 크게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삽화와 발문 분석은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형 분석을 하였다. 삽화와 발문의 유형은 동기유발, 배경지식활성화, 학습목표주지로 분류하였고, 동기유발 유형은 주의집중 측면, 관련성 측면, 자신감 측면으로 하위 범주를 정하였다. 이에 따른 삽화와 발문의 분석 결과로는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경지식활성화, 학습목표주지 유형 순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중·저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유형 분류라고 판단하였다.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 분석은 교사와 학습자가 단원 학습의 방

향과 학습 문제를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파악하며 단원의 본시 학습에 앞서 단원의 성격을 결정짓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각 학년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이 제공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원의 길라잡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발문으로만 단원의 길라잡이를 제공한 경우나, 학년 간의 연계성, 교과서 간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도입 학습’ 용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상에 교과서 단원 도입면에 대한 학습을 ‘도입 학습’으로 명확히 지칭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학습은 하지만 이해학습이나 적용학습에 비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 간혹 학습 내용과 직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삽화나 삽화만 보고는 어떤 언어 사용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삽화와 발문이 있다. 교사가 모든 수업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삽화와 발문을 보고 쉽게 학습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요구된다.

셋째는 단원의 길라잡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수업 상황에서 이를 지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글상자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나 형식에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넷째,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에 대한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과 교과서 간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모든 단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학년 간에 학습 내용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교과서 간에 같은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입 학습은 이해학습이나 적용학습처럼 한 차시 분량의 학습이 아니고 본시 학습 전 40분 수업의 일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상황에서 도입 학습의 내용이 적절히 재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도입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한 차시 분량이 아닌 학습이라는 점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지는 못하다. 단원 구성 체제와 수업 현실을 반영하여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기존의 교과서 보다 뚜렷한 단원의 학습 방향 제시와, 효과적인 본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의 역할, 학년 간의 연계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도입 학습이 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4-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읽기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쓰기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단행본>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2). 교육학 대사전. 교육서관.
- 노명완 외. (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신천재 외. (2009).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 최미숙 외. (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현섭 외. (2008).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 교수학습 연구소(편). (2006).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허승환. (2010). **수업 시작 5분을 잡아라**. 즐거운 학교

<논문 및 학술지>

- 김미연. (2002).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학습자 활동 중심에 근거한 교과서 단원 도입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옥. (2004).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준비학습'의 적절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수현. (2003).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체제의 비교 연구 :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정임. (2006). **ARCS 동기유발 이론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태은. (2009). **그림동화 읽기 과정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창원. (2005). **미래 지향형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원리**. 제24회 경인초등국어교육학과 하계연구발표.
- 노명완. (2002).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 7.
- 민경미 (2003). **초등 국어 교과서 '쉽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박영민. (2004).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진술의 방안**.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학술세미나.
- 박인기. (2006).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초등 국어과 교과서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박정진. (2005). **학교급별 국어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25.
- 신현재. (2006). **제7차 초등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이인원. (2008).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전 활동에 관한 연구 : 배경 지식과**

- 사고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주섭. (2007). **초등 국어 교과서의 분책 방식과 단원 구성 방식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3.
- 이주섭. (200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분석 : 『말하기·듣기』 교과서의 원리학습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 정인석. (2001).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전희경. (2006). **교과서 편찬 기본 방향에 따른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혜승. (2006).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원 구성의 방향. **어문연구**, 34.
- 최영환. (2003). 효율적인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6.
- 최형욱. (2005).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 분석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한명숙. (2006). **초등 국어과 교과서 개발과 단원 구성체제**.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황정현. (2006). **초등 국어과 교과서 구성의 방향과 원리 :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ABSTRACT

An Analysis of 'Introducti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According to
2007 Revised Curriculum
- Focused on 1st to 4th Graders -

Choi, Ji Young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Joo Seop

This study was executed to examine what has to be done to improve introduction learning in Korean language text book by performing analysis dividing the total introduction learning in the first grade to the fourth grade text books into two parts.

We judged that reviewing the text books which are utilized as cor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classroom sites not at an abstract level but putting the focus on the aspect that these are directly inputted to learning sites, and sharing the findings with site teacher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bout textbook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esson.

Accordingly, we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f meticulously reviewing what is the objective of introduction learning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tart of a unit and in what type introduction learning is presented to achieve such an objective.

When we look into the detailed process of discussion, in Chapter II which is the study on theoretical background for analysis of introduction learning, we reviewed concept and function of a textbook in Clause 1. We studied learning motivation theory of Keller in clause 2 in order to provide a type classification standard required for analysis of illustration and type of introduction learning. In clause 3, we briefly investigated the part of revised educational course of 2007 related to this study and reviewed composition principle and system as well as components of units of a textbook.

In Chapter III, we analyzed 'introduction learning' of hear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units of revised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2007. In clause 1, we explained the method to analyze 159 introduction learnings of total 20 volumes of the first to fourth grade textbooks. In clause 2, introduction learning was analyzed dividing it into two parts, episode with epilogue and guide for the unit, and we could not find any big problem in the overall look of the type of episode and epilogue. In case of the first grade, there were far more cases of motivation type and, though there were more cases of motivation type as the grade went up, background knowledge invigoration type also comprised somewhat high weight. By comparison, learning goal reminding type showed low frequency in all the grades. At the first and the fourth grade level, we judged that episodes and epilogues which induce learning motive for the content to learn in the unit and invigorate background knowledge are more adequate than guide for learning activities a little formally unfolded which helps the students to recognize and resolve learning goals when unfolding introduction learning. Though adequate contents were being provided for unit guides in most of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ach grade, there was a necessity to pay some more attention to consistency between textbooks and connectivity between grades. In Clause 3, we looked into the method to improve introduction learning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analysis carried out in Clause 2.

In Chapter IV, we put together what we have discussed up to now and proposed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learning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better introduction learn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art using the term 'introduction learning' in the textbooks or in the guides for teachers. Second, it is required to produce episodes and epilogues through continuous study in order to efficiently induce motivation of learners and to help them to invigorate background knowledge and recognize learning goals. Third, we need introduction of the term 'guide for unit' and guidelines for the content to be provided for the same. Fourth, a follow-up study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the aspect of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between grades and textbooks of guide for unit.

Qualitative improvement of introduction learning of textbook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by researchers through incessant interest in and study on introduction learning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tart of learning in a unit so that the content to learn in the 'beginning' of a unit such as direction and nature of learning can be accurately provided to learners and teachers in addition to inducement of motivation, invigoration of background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learning goals.

Key words: Introduction Learning, Episode And Epilogue, Guide For Unit